

Global Markets Monitor



Global Strategy 김예슬 02) 6915-5526 / chchu93@ibks.com

美 국가부채 40조 달러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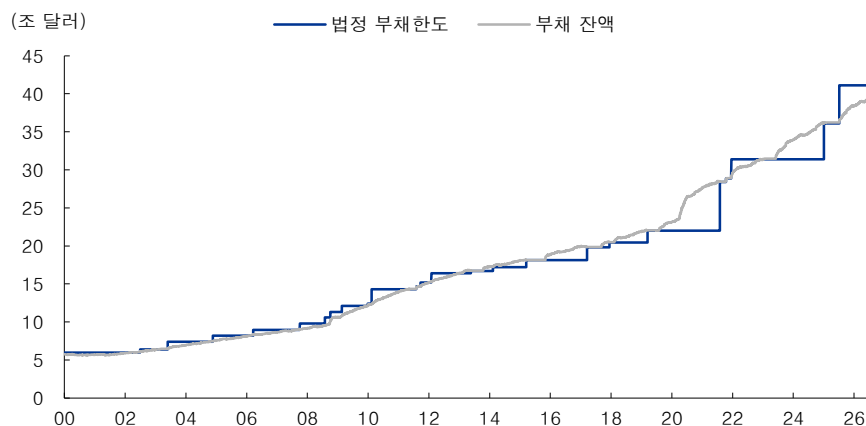
재정건전성 목표와 현실의 괴리 확대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8월 18일 미국 총 국가부채는 40조 470억 달러로 법정 부채 한도인 41조 1,000억 달러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2022년 30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불과 4년 7개월 만에 국가부채가 약 10조 달러 증가했다. 1)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부채 수준이 크게 높아진 이후에도 2)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메디케어 관련 의무 지출 확대와 3) 감세정책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가 지속되면서 미국 재정지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재정 부담이 지속되면서 국가부채 증가세도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CBO는 향후 10년 동안 54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재정건전성 개선 목표와의 괴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7년 중반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란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방비 확대는 부채한도 도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 국방부 예산으로 1.45조 달러를 요청한 데 이어, 이란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도 의회에 요청했다. 향후 추가 군사비 규모와 실제 집행 속도에 따라 정부의 차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법정 부채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재무부는 추가 차입 여력이 제한되며, 회계상 특별조치를 활용해 정부 지출을 충당하게 된다. 최근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차기 부채한도 상향 협상 시점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부채한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재정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반복적인 부채한도 협상과 재정 악화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Fitch는 2023년 8월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반복적인 부채한도 협상과 재정 거버넌스 악화를 지적했고, Moody's도 2025년 부채와 이자비용 증가를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낮췄다.

그림 1. 미국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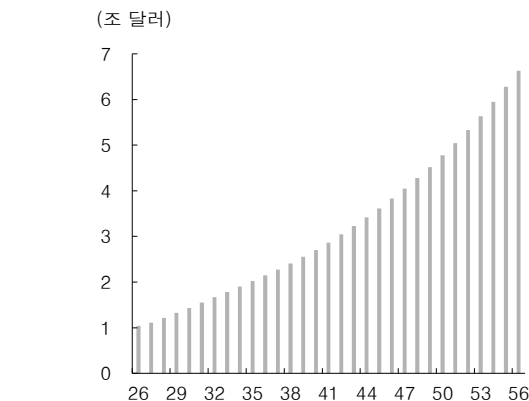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부채 급증과 함께 고금리 환경이 맞물리면서 연방정부 이자비용 부담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자비용은 의료·사회 보장 지출에 이어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항목이다. 문제는 늘어난 이자비용이 재정 지출을 압박하는 동시에 추가 차입 수요를 키우고, 이는 다시 금리와 부채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이자 부담은 장기적으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CBO는 미국 순이자비용이 FY2026년 1조 달러에서 FY2036년 2.1조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GDP 대비 순이자비용 역시 지난 50년 평균인 2.1%를 상회해 FY2026년 3.3%에서 FY2036년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순이자비용은 주요 연방정부 지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FY2026~2036년 순이자비용은 106% 증가하는 반면 메디케어는 85%, 사회보장 지출은 6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 세입 증가율 역시 48%에 그쳐 이자비용 증가 속도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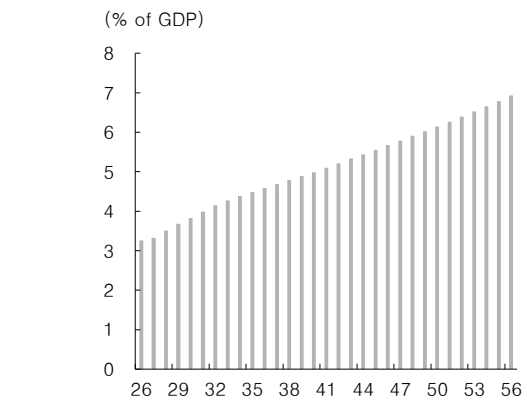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순이자비용이 전체 연방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Y2026년 19%에서 FY2036년 2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자비용이 다른 주요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8년에는 메디케어 지출을 넘어선 뒤 2048년에는 연방정부의 최대 지출 항목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자비용에 투입되는 재원이 늘어날수록 다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점차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미국 연방정부 순이자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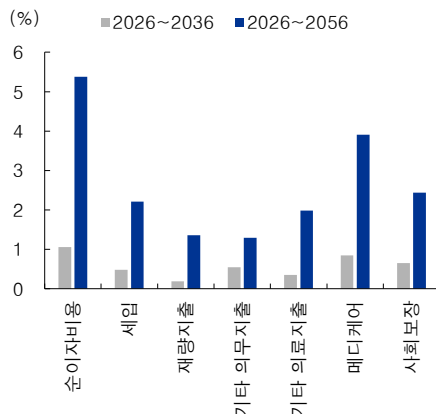
자료: CBO, IBK투자증권

그림 3. GDP 대비 미국 연방정부 순이자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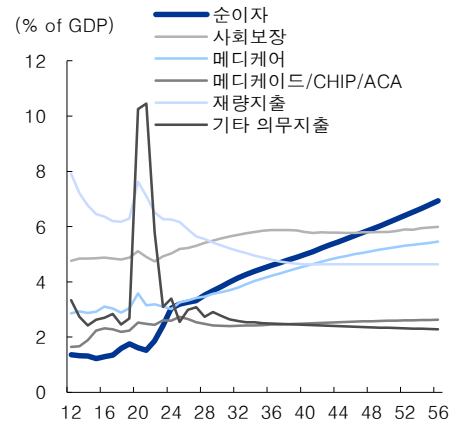
자료: CBO, IBK투자증권

그림 4. 주요 예산 항목별 지출 증가율 전망



자료: CBO, American Action Forum, IBK투자증권

그림 5. 미국 연방정부 주요 지출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전망



자료: CBO, IBK투자증권